3·1운동 100주년, 역사와 교육을 묻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 28일 토크콘서트 개최 … 일제 잔재 청산 공론화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3·1운동 100주년, 역사와 교육을 묻다'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를 오는 28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역사에 비추어 오늘날의 교육을 되돌아보기 위함이다.

학생과 교원·교문직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패널로는 전주대 홍성덕 교수, 전북대 윤상원 교수, 예수대 임신일 교수, 원광여중 권익산 교사, 신흥고 김준 학생이 참여한다.

토크콘서트는 크게 두 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제 1 '학교 안 일제 잔재'에서는 ▲교육 속 일제 잔재 개념 정의 ▲일제가 교육을 통한 민족 말살, 황국신민화 교육을 시도한 배경 ▲학교 안 일제 잔재가 왜 문제인가 ▲일제 잔재 청산 노력과 방법 등을 논의한다.

또 주제 2 '전북 학생 항일운동'에서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갖는 의미 ▲전북 학생 항일 운동 사례 소개 ▲전북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중·고생들의 인식 ▲전북 학생 항일운동에 비추어 우리가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다.

김정기 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교 안 일제 잔재를 되돌아보고, 오늘의 우리가 해야할 일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토크콘서트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박문제관리 전북센터 대학생 도박 예방 캠페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센터장 오남경, 이하 전북센터)는 최근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축제 참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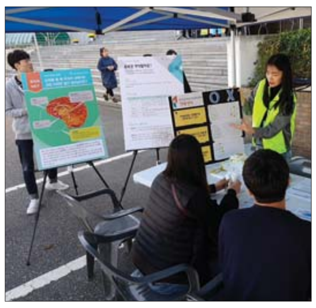
전북센터는 지난 22일 자원봉사 학생들과 함께 ▲도박문제 OX퀴즈 풀기 ▲1336과 넷라인 정보 제공 ▲도박문제 선별검사 ▲도박문제 현장상담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도박문제 예방활동을 제공했다.

오남경 센터장은 "도박문제는 대학생들의 학업을 비롯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대학생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캠퍼스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도박문제 인식 개선과 폐해 예방에 초점을 둔 캠페인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지정하고 전북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전문상담기관으로, 전북지역 문제 도박자와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치유상담 서비스와 예방 교육,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캠페인 등을 제공해 왔다.

도박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은 국번 없이 1336 전화상담과 온라인 넷라인(http://netline.kcgp.or.kr) 사이트를 통해 채팅상담이 가능하다.

/장은성기자



전북대학교와 전북현대모터스가 최근 '전대 챔피언십 2019'을 진행했다.

전북 대표 명문들의 따뜻한 동행

전북현대와 함께한 '전대 챔피언십' 큰 호응… 참여 학생 90% 이상 만족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전북현대모터스는 최근 학생 대상 축구대회인 '전대 챔피언십 2019'을 전북대 보조구장과 덕진체련구장,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학과 및 동아리 학생 등 16개팀이 4그룹으로 예선과 본선을 치른 이번 대회에서는 체육교육과 팀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017년 전북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첫 대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대회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회 운영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전북현대와 함께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참가자의 90.9%가 대회 운영에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79.5%가 내년대회 참가를 희망했다.

17.4%는 졸업, 입대 등으로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로 순수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3%에 불과했다.

항목별 만족도에서는 전북현대 구단의 아낌없는 지원이 꼽혔다.

이번 대회에 전북현대는 참가자 전체에 유니폼과 함께 각 팀 별로 연습구를 지급하며 안정적으로 축구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전경기 사진 촬영과 SNS 채널 운영은 79.5%, 기록관, 의료진 등 강화된 운영진은 43.2%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 대회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스포츠 산업 분야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동원 총장은 "전북현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이번 대회가 많은 학생들의 만족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전북대와 전북현대가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 명문 구단인 만큼 따뜻하게 동행해 지역 발전과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대 HK+연구단, 국제학술대회 성황리 마쳐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은 24일 본교 진리관 307호에서 '공동체의 운영원리와 유교문화,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정체성 구상'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탈유교 사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유교문화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성찰해 그 현재적 의미가 무엇인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연구를 위해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유교문화와 탈유교화에 주목해 기획됐다.

국제학술대회는 변주승 HK+연구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6개의 연구 주제에 대해 한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허명철 교수(연변대)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역사 귀속: 조선족을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리 화 교수(연변대)의 '조선족 공동체의 정체성 구축원리: '효'문화를 중심으로', 임 엘비라 교수(사할린국립대학)의 '소련시대 사할린 한인의 가족문화', 한 넬리 교수(카자흐스탄외국어대학)의 '유교문화와 중앙아시아 고려인', 김창민 교수(전주대)의 '제주 제주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문화적 기초', 김인덕 교수(청암대)의 '재일동포 공동체의 유교문화 인식-이은직을 통해-' 등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발표에 대해 김주용 교수(원광대), 장순순 교수(전주대), 윤상원 교수(전북대), 홍웅호 교수(동국대), 김민영 교수(군산대), 변은진 교수(전주대)의 토론이 진행됐다.

변주승 HK+연구단장은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공동체 모습을 탐색하는 데 있어,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존의 인간학을 고찰하는 HK+연구단의 탐색에 단단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 대회를 통해 각국의 연구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국제연구의 교류의 장이 되기를 축원했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 설립돼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등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장은성기자

전주비전대 LINC+사업단,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시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LINC+사업단은 23일 교내에서 '2019년 LINC+사업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LINC+사업 협약산업체 애로사항 해결 및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 배양을 위해 6개월 동안 교수와 협약산업체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도를 받아, 총 21개 작품을 개발했다. 개발된 작품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2019 LINC+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작품 평가 및 전시를 진행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총 7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은 스마트폰과 목줄을 블루투스로 연동시켜, 진동을 통해 반려견을 훈련시키는 제품을 개발한 '원격 동작 제어가 가능한 반려견 전자목줄'(전자과 BRAVO팀, 김재정 외 10명)이 차지했다.

박용균 LINC+사업단장은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창의적 작품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4차산업혁명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LINC+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LINC+사업단은 9개 사회맞춤형학과를 운영하며 협약산업체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북지역 취업 미스매칭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오늘 초등 교원 대상 수학수업 돋움 워크숍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늘 오후 4시부터 2층 강당에서 초등 수학수업에 고민을 가진 교원, 경력 15년 이하 초등교사, 단위학교 수업 나눔 동아리 회원 교사, 동학년별 희망교사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 수학수업 돋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초등 3학년 수학포기자 관련 사회적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초등 수학수업의 원리와 학생발달에 대한 교원 이해를 제고하고, 초등교사의 수학수업 성찰과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 수학수업에 대한 동학년별 수업 고민과 나눔을 통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주요 내용은 초등교사 연극교육연구회의 수학 상황극을 시작으로 ▲초등 수학수업 다시 생각하기 ▲교구를 활용한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 수학 수업 ▲수업사례 및 고민 나누기 ▲질의응답 등이다.

/장은성 기자